



아뉘! 2010 치킨 페스티벌 닭에 얽힌 갖가지 이야기들, '사연 많은 닭'

2010 치킨 페스티벌의 사전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사연 많은 닭' 코너. '사연 많은 닭'은 닭에 얽힌 에피소드 중 재미있는 사연들을 골라 총 20분께 치킨을 배달하는 이벤트이다. 총 374건의 이야기 중 20건을 선정, 각각의 주소지로 치킨을 배달해 드렸다.

닭과 관련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들어보자.

(내용은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의 필체를 최대한 반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쫄쫄한 남자의 후라이드 치킨

글쓴이 : 장미숙 - [erigeronf@naver.com]

요즘은 우아하고 세련된 카페나 커피향기가 그윽한 커피숍 등에서 선을 보고 그에 맞게 음식도 우아하게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70~80년대는 다소 어둡침침하고 담배연기 자욱하던 다방이란 곳에서 선을 봤다. 그때만 해도 팝송과 함께 후라이드 치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던 시기였다.

직장인들의 회식에서 빠질 수 없었던 후라이드 치킨.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회식 날은 무조건 후라이드 치킨 집이었고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 치킨 집으로 우루루 몰려가곤 했다. 그만큼 후라이드 치킨은 인기절정을 누렸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맛도 아닌 그저 기름에 바삭

바삭 튀긴 한 가지 맛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먹을 때마다 맛있었던 걸 보면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끔 중매가 들어왔다. 특별히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할 마음도 없었지만 중매가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힘들어 커피나 한잔 얻어 마시고 말아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을 보러 나가곤 했다. 다방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고, 조금 마음이 있으면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나는 일차에서 끝냈다.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번은 직장 언니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다. 언니가 하도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을 해서 약간의 기대를 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걸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다. 마침 근처에 치킨집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치킨을 시켜놓고 막상 먹으려고 하니 부끄러웠다. 교양 없이 먹을 것만 밝히더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 별로 생각이 없다며 겨우 두어 개 집어먹고는 말았지만 속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남자도 웬일인지 몇

조각 먹다가 말았다. 남자는 처음 볼 때 깔끔했던 인상과는 달리 볼수록 느끼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차츰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일어나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걸리는 건 먹다 남은 통닭이었다. 도저히 아까워서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었다. 싸가지고 가서 같이 자취하던 친구들과 나눠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내 마음은 온통 치킨에 쏠려 있었다.

남자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걸 눈치 챘는지 “그만 가지요.” 하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줌마를 부르더니 치킨을 싸달라는 것이다. 나는 순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네. 상대방을 생각할 줄도 알고... 고마워서 어찌나’ 하며 잔뜩 기대를 한 채 서 있었는데 남자는 치킨 봉지를 받더니 “동생들이 치킨을 좋아해서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 다시 봅시다.” 하며 얼굴 한번 변하지 않고 치킨을 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마음이 그럴까. 그럴 줄 알았으면 체면 차리지 말고 다 먹어버릴 걸 하는 후회를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후로 난 다시는 남자와 치킨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



제목 : 이게 왜 닭판??

글쓴이 : 이해영 - [hyeyungg@naver.com]

때는 바야흐로 2004년. 막 신입생이 된 후 대학교 동아리에서 발생합니다.ㅜㅜ

신입생 초기에는 만날 동아리에서 술판 벌이자나요^^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날도 거나하게 막걸리 한잔을 친구삼아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꽤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 갑자기 기름지고 바삭바삭한 치킨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용돈도 받았고 해서 제가 쓴다고 하고 대신 친구한테 학교근처 닭집에서 닭한마리만 시키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시키고 오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친구놈도 얼큰하게 취해 있었지만 꽤 멀리 있는 곳까지 돈까지 내면서 갔다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저는 친구를 믿고 계속 나머지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곧이어 친구가 도착하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닭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닭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썬 뭐야!! 왜 안와~~다 늦은 저녁에..... 우썬~ 야! 닭오면 도로 가져가라 하자.”

1시간이 넘는 기다림에 화가 나서 ‘닭이 오면 따끔히 뭐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저기요~치킨왔습니다.”

약 한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뭐 배달이 밀렸으려니 즐겁게 먹자라고 생각하며 동아리방문을 연 순간!!! 닭집아저씨의 손에는 무려 20마리의 닭이 들려있었습니다.

“어? 아저씨! 저희 1마리밖에 안시켰는데...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까 온 친구가 분명히 20마리라 했어~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아저씨께 들은 얘기는 저희를 모두 경악케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호수가 20호였거든요..

ㅠㅠ 아저씨가 몇 마리냐 물어봤더니 만취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ㅠ

“아저씨~ 20호로 20마리~”

흑... ㅠㅠ

사고를 친 친구는 조용히 술이 딱이 된 채 옆에 잠들어 있었기에 저희는 조용히 닭을 방안으로 옮긴 후 아저씨께 짹짹 빌었습니다. ㅠㅠ

“아저씨... ㅠㅠ 닭값 내일 드리면 안될까요?”

그래도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2마리는 서비스로 생각했다며 18마리 가격만 쳐달라고 하시면 조용히 학생증을 거둬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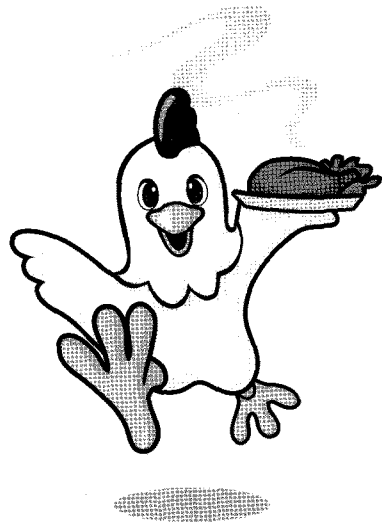
대략 난감한 사태에 저희 모두는 마치 마법처럼 술이 깎고 내일 각자 닭 두마리 값씩을 가져오기로 합의했습니다. ㅠㅠ

그리고 짹 달아난 입맛에 모두 닭을 양손에 싸들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물론 ^o^ 그 술에 딱이 된 친구는 버리고 왔습니다...-_-

그래도 순간이나마 그렇게 많은 닭을 한꺼번에 본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참 기쁘고도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슬펐던 경험이었습니다. ㅎㅎ~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닭을 먹는거 보면 저 닭중독인거 맞죠??

ㅎㅎ





제목 : 엄마가 한번도 거절하지 않은 이유

글쓴이 : 김진화 - [ssonjang@naver.com]

우연히 치킨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치킨 하나까 엄마가 생각 나서요.

저희 엄마는 제가 치킨을 시켜달라 그러면 단 한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다른 음식들은 거절하시거든요. 머... 탕수육, 짜장면 등등..

근데 제가 대학때일꺼예요. 엄마와 식탁에서 단둘이 식사하게 되었을 때 거절하지 않은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유를 직접 말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일명 공순이셨어요. 옷을 미싱으로 박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 없이 공장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먹고 자기만 했던 시절에 재단사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셔서.., 오빠를 낳고, 정말 너무너무도 가난해서 절 임신한 중에도 몇 리 길을 버스 탈 돈이 없어 걸어 다니셨대요.

그러던 도중 파출소앞에서 쓰러지셨고 경찰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셨다가도 병원비 때문에 집으로 오셨대요. 그걸 아신

아버지는.. 몇 푼 안되는 일당으로 닭을 한마리도 못 사고 반마리 밖에 못사셨대요. 생닭을 엄마께 삶아서 먹으라고 드리니 엄마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물에 닭을 넣고는 다 삶아지자 냄비를 든 채 바로 등을 돌려 허겁지겁 드셨대요.

나중에 아버지랑도 이야기하다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혹이라도 옆에 있으면 체할까봐 밖에 나가주셨대요.

닭이 반마리라 몇 분도 안돼서 그릇을 놓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보시니 냄비 안에 국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쪽쪽 빨고 했는지 닭뼈에 수분기가 없을 정도였대요. 아버지는 “그땐 왜 그렇게 못살았는지...” 요즘도 이런 말씀하세요.

음.... 엄마가 제가 치킨사달랄 때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없었던 시절에 허겁지겁 먹은 닭 반마리는.. 제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래도 어려웠을 때 못 먹던 그 한이.. 다른 부모님들도 느꼈을 그 느낌.. “내새끼 먹을 것만큼은..” 때문일꺼예요..

치킨먹을 때도 항상 맛있는 부위는 절 위해 주시는 엄마께 그 시절을 추억으로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치킨 배달해 주시면 안될까요?^^ 엄마.. 정말 사랑해! 아빠두 ♡

제목 : 그때 참았더라면...

글쓴이 : 김영숙 - [kys6560@hanmail.net]

먼저 “치킨 페스티벌”이라는 좋은 행사를 알게 되어 영광이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1969년, 닭띠해에 태어났답니다. 육고기 중에서는 닭고기로 만든 음식은 다 좋아하지요. 이상하게도 체질이 그런지 아님 촌스러워 그런지 돼지고기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몸에서 받아들일 질 않나 봐요. 그렇다고 쇠고기는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구...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연인 즉, 결혼 후 임신을 해서 4개월간의 심한 입덧이 잠잠해질 무렵 치킨이 너무나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참고로 저희 신랑이 군인인데 입덧이 심한 저를 친정에 데려다 놓았답니다). 친정엄마한테 치킨이 먹고 싶다고 배달시키자고 했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피부가 닭살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먹고 싶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를 한다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건만 글썄, 저녁에 퇴근한 여동생이 닭고기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치킨을 사들고 온 거예요. 여차저차 제가 못 먹는 사정을 알고 동생과 엄마만 먹게 되었죠. 저는 먹고 싶은 충동

과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새벽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식탁 위에 남겨진 치킨이 제 눈에 들어오고 순간 아무생각 없이 치킨에 손이 가고- 손에 들린 치킨이- 제 입속에 쏘~옥 들어갔지요. 잠이 다 확 깰 정도의 맛. 정말 꿀맛이었죠. 새벽인지라 다른 가족들 일어날까봐 조심조심 조용히 먹으면서 저는 합리화를 시켰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짝 눈 가진 아이 낳은 거보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쁜 아이 낳은 게 낫지 않~ 그렇구 말구. ㅋㅋ’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저희 큰 딸. 그 치킨 때문일까요? 약간의 아토피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다는 소리 듣고 살지요. 그 딸 역시나 치킨을 무지 좋아라 하구요. 간식으로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하고 물으면 99%는 치킨을 선택할 정도니 할 말 없죠? ^^

더군다나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 날이 가까워지면 2~3일 전부터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을 거 같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쩔 증세가 제가 임신했을 때 그 당시와 비슷한지... 이제 또 그날이 다가왔네요. “엄마, 오늘 나 치킨이 엄청 땡기는 날이에요. 미리 주문해 놓으세요~~”

이토록 “치킨 사랑”에 폭 빠져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24일 치킨 배달해 주실거죠~~~



제목 : 닭 먹고 순풍

글쓴이 : 김선화 - [pobox@naver.com]

친정엄마가 날 임신했을 때 굴뚝에서 넘어지셨대요. 농번기 철이라 정신없이 바쁘고 가난해서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열 달을 힘겹게 보냈는데 뱃속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밤낮으로 일만 하셨다는데 그 험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사지는 멀쩡해도 허약해서 성장이 많이 느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석하는 날이 종종 있었답니다. 초등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개근상이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은 학교간다고 삼삼오오 몰려 가버리면 난 마당에 나와서 닭이랑 놀았는데 하루는 닭이 알을 낳는다고 용을 쓰더라구요. 우리 집엔 개는 키우기만 하면 산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대신 닭을 몇 마리 키웠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참동안 등지 안에 손을 넣고 있었더니 닭이 킁킁 대면서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바로 내 손 위에 딱끈한 계란을 낳은 것이지요. 이야~~ 정말 그때 그 감동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정말 신기했답니다.

그 후로 닭을 많이 사랑했답니다. 닭을 사랑했으면 닭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닭요리를 무진장 좋아했지요. 영양가도 높고 닭요리는 맛도 좋아서 닭으로 만든 요리는 다 잘 먹는답니다.

큰 아이 낳고 둘째를 결혼 9년만에 가졌답니다. 입덧할 때는 물도 다 토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 먹지만 입덧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영양보충을 해야 할 시기는 어김없이 닭요리를 즐겨 먹었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은 임신하고 정말 많이 먹었지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다보니 체력이 약하면 출산할 때 힘들다고 무조건 잘 먹어야 상책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치킨이며 닭볶음탕이며 닭누룽지 백숙이며 돌아가면서 닭요리를 먹었지요. 밤늦게 산책하다보면 출출하면 치킨집으로 가서 한마리 뜯어야 잠을 편히 잤을 정도로 닭을 좋아했지요.

그렇게 막달이 다가오고 출산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남편이랑 아이랑 주말 오후 치킨집으로 향했지요. 열심히 닭다리도 뜯고 양념과 후라이드를 마음껏 먹고 있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구요. 애가 나올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 치킨집에서 실컷 먹고 집으로 오니 도저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아차~~ 진통 간격을 재어보니 심

상찮아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곧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터울이라 진통이 첫째 때와 똑같다고 하더니 배가 갑자기 아프더니 관장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든든하게 닭을 먹었겠다~~ 닭의 힘으로 애를 낳았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으면 애가 더디 나오는데 닭먹고 순풍했답니다.

물론 아플 만큼 아팠지만 속이 든든하니 첫째보다 확실히 덜 힘들고 나이가 많지만 잘 먹으면 애도 쉽게 낳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6개월된 우리 딸 이유식을 닭가슴살로 해주는데 너무 잘 먹어요. 엄마따라 우리 딸도 닭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닭을 사랑할거예요.

제목 : 닥치고??닭치고!!!!

글쓴이 : 남궁혜숙 - [dear0048@nate.com]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과 급훈을 정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1. 닥치고 공부하자
2. 우주 전쟁
3. 천하대가자
4. 자알 살자...

자유롭게 발표시켰더니 이렇게 황당한 것들까지 나오더군요... 다수결로 하나의 의견을 정하려다 4가지를 모두 합하여 이런 문장을 칠판에 적었더니 애들이 모두 자리지게 웃더군요...

“닥치고 공부해서 천하대 가면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여 잘 살 수 있다.”

학급 액자를 교실 밖에 걸어야 하는데 ‘닥치고’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도 되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학급 액자에 급훈을 적어 넣었습니다.

“닭치고 열공해서 천하대 가자~~~~”

아이들은 닭을 닭대가리와 연관을 지어가며 우리가 닭이라는 소리냐고 원성을 표현했지만 아직도 곳곳이 그 액자는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선물로 닭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급 아이들과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꼭 나눠 먹고 싶네요^^

제목 :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셨던 부모님..

글쓴이 : 김경희 - [goma28@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빠른이라 25살)인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맏딸이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나름 5명의 적지 않은 가족구성원을 자랑합니다.

이런 우리 가족은 항상 치킨을 시키면 1마리만 시켰어요. 저희 큰아버지네도 5명인데 1사람당 거의 1마리를 먹는다고 2~3마리는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항상 1마리였어요.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생각해보니 저와 동생들이 먹는 양도 늘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1마리... 먹을 땐 몰랐는데 맛있게 치킨을 뜯다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1~2조각 드시고 물러나시더군요. 어릴 땐 차마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인가? 여쭙봤어요.

“엄마, 엄마 아빠는 왜 치킨을 조금밖에 안드세요?”

“별로 안 좋아해..”

“에이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딴어요??”

“.... 다 니들 먹일라구 그러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뭐 부모님이니까 자식한테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건가?’ 하는 껄스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 올해 23살. 지금 임신 5개월째입니다. 19살부터 미용일을 시작해서 쥐꼬리만한 월급받으면서 한 곳에서 일하고 4년 후 나와 다른 미용실을 갔는데 동생에게 하는 취급이 안 좋아 또 다른 곳으로.. 거긴 정말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안 좋다가에 나중에 동생을 불러준다기에... 현재 집에 있네요.

그러던 중 임신소식을 들었고.. 저희 가족에겐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많이 화목하진 않지만(사실 요새들어 많이 소원하네요..) 저도 직장다니고 여동생은 구직 중이지만 실력있고, 남동생도 체대생으로 헬스 트레이너도 겸하고 있고요. 나름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웬 날벼락인가요... 제가 회사가 지방이라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가는데 어젠 평

일에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여동생과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동안 한참 듣더니...

“그래도 내 애는 안 지워!”

전 이제까지 얘기한 게 도로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그 자리를 박차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을 나왔네요.

그렇게 나와 근처에서 잠을 자고 지금 회사입니다. 동료가 치킨 페스티벌에 관련된 mail을 쫓고 팀에 공유하다가 이런 이벤트에도 응모하네요... 좀 기분이 나아질까... 가족얘기 쏟아내면서 좀 흥분해 질까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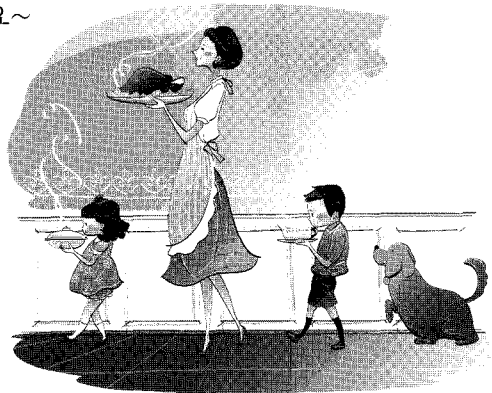
치킨 몇 조각 더 먹겠다고 부모님의 마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인데... 동생이 갑자기 임신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꼭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고 할까요... 여동생과 즐겁게 지내지도 못했는데... 가족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도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애를 낳아 키우겠다는 여동생도 정말 밉습니다. 결국 결혼시키기로 결정은 났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나름 딸딸로 항상 거의 모든 일에 제가 나서서 했었거든요. 이번 만큼은 참.. 힘드네요...

치킨을 생각하다가, 외식 한번 안하시는 아버지가 어릴 적 어쩌다 한 번 시켜주시는 한 마리의 치킨이 생각나 가족얘기까지 적네요...

제가 지금의 무거운 기분을 떨쳐버리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치킨을 시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음 하네요. 그간 소원했던 우리 가족도 여동생의 결혼, 출산으로 다시금 가족애를 꽃피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고요..

이번에 치킨시켜 먹으면 꼭 2마리 시킬 꺼예요~





제목 : 닭덕후 울아들 경훈이의 출생의 비밀

글쓴이 : 김승연 - [seungyoun82@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올해 결혼 7년차 29세 주부입니다. 멋진 신랑과 귀여운 6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구 있구요~ 23살에 대학 선배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결혼을 한 편입니다. 후훗! 조금 부끄럽군요. ^^*

저희는 어느 부부들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남편이랑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잘 맞는 편이었고(성격, 생활패턴.. 기타 등등), 남편한테 딱히 불만사항은 없었는데 단 한가지 남편이랑 저랑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식성었습니다.

저는 처녀시절 닭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닭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다음카페 닭동아리에 가입할 정도로 닭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참고로 닭동아리에서 하는 일 : 전국 닭맛있게 하는 집 닭치고 찾아땡기기ㅋㅋㅋ 뭐 닭발, 닭똥집 다 포함임 ㅋㅋ), 심지어는 나중에 치킨집을 차려볼까 고민도 심각하게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비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 신랑은 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닭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식재료나 음식을 섭취하면 온몸에 빨강게 두드러기가 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알러지가 있었던 거죠.

뭐 이유인 즉슨 어릴 때 닭 잘못 먹고 체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결국 집에서는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닭으로 요리를 해먹기는 커녕 그 흔한 후라이드 치킨도 시켜 먹을수 없었고(뭐 냄새도 싫다니 -- 어쩔수 없었죠) 저는 그제 넘 서운했습니다. 밤에 원래 부부들끼리 닭다리 뜯으며 맥주 한캔 까구 속맘 털어놓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나?!

저는 몸에 이상징후를 느껴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을 했다는 다소 충격적인(당장 계획은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태교에 들어갔습니다.

임신하니까 음식이 미친 듯이 땡기는데 닭은 역시 예외일 수 없더군요. 아니 오히려 결혼전보다 더 절실히, 정말 걸어도 누워도 닭생각만 났습니다. 백숙, 닭도리탕은 물론이고 닭강정, 닭튀김, 바비큐, 후라이드반 양념반, 닭발, 닭똥집...

그런데 제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니까 변

해버렸습니다. 절 많이 사랑했는지... 밤낮으로 절 위해 그 많은 닭들을 사다 나르더군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라면서.. 그것 때문에 남편 몸에 알려지도 꽤 낮았어요. 아무래도 그걸 다 먹는 저랑 함께 살 맞대고 살아서 그런가..... ㅋㅋㅋ

그렇게 열달이 지나 세상에서 켈 사랑스러운 울 아들 경훈이가 태어났구요. 자연분만에 모유수유를 하니 아주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쉬!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살 정도 되서 이제 막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기 시작한 경훈이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삼계탕을 닭을 흘리며 너무나도 맛나게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이 짧아 간식을 챙겨줘도 늘 시큰둥하던 아이가 마트에서 파는 용가리치킨을 튀겨서 줬더니 아주 환장을 하고 먹는거예요(사실 맥주에다가 한잔하려고 안주용으로 샀었지만.. ㅋㅋ). 늘 용가리치킨은 울 경훈이 몫이 되어버렸죠. ㅠㅠ

아무튼 지금도 우리 집은 만날 치킨배달 상자랑 쿠폰만 수북하답니다. ㅋㅋㅋ

신랑이 저녁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이랑 저는 둘이서 밥대신 양념반 후라

이드반 시켜서 아이는 주스랑, 전 맥주 한 캔이랑 먹곤 하거든요 ㅎㅎㅎ 개인적으로 비비큐(대농구 이렇게 상표 써두 되나? ㅋㅋ)랑 BHC랑 보드랍치킨을 선호하구요. 정든닭발이라고 저희 고장에 아주 유명한 닭발집이 있는데 그쪽도 많이 이용합니다(단념 매워서 울 아들은 못먹구요! 언젠간 요놈이 오돌뼈 먹겠다고 달려드는데 말리느라 혼났음 ㅋㅋㅋㅋㅋㅋ).

어느 날 우연히 블로그 이리저리 다니다가 치킨 페스티벌을 알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앓!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것은 신세계이며 울 아들과 나를 위한 잔치다. ㅋㅋㅋㅋ 뭐.. 다른 사람들 사연에 비하겠나만은.. 나름 사연이 있는지라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의 이 사연이 채택되길 울 아들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아들과 공짜로 배달된 닭을 먹으며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끼고 감동에 젖어보고 싶습니다. ㄹㄹ